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2004. 9. 30(목)

통 일 부

순서

I. 개성공단 개발계획

II. 1단계 부지조성 및 입주준비 현황

III. 시범단지 지원대책

IV. 향후 추진방향

1. 개성공단 개발 계획

1. 사업개요

-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 면 적 : 총 2,000만평(65.7km²),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단계별 개발계획 : 3차에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연내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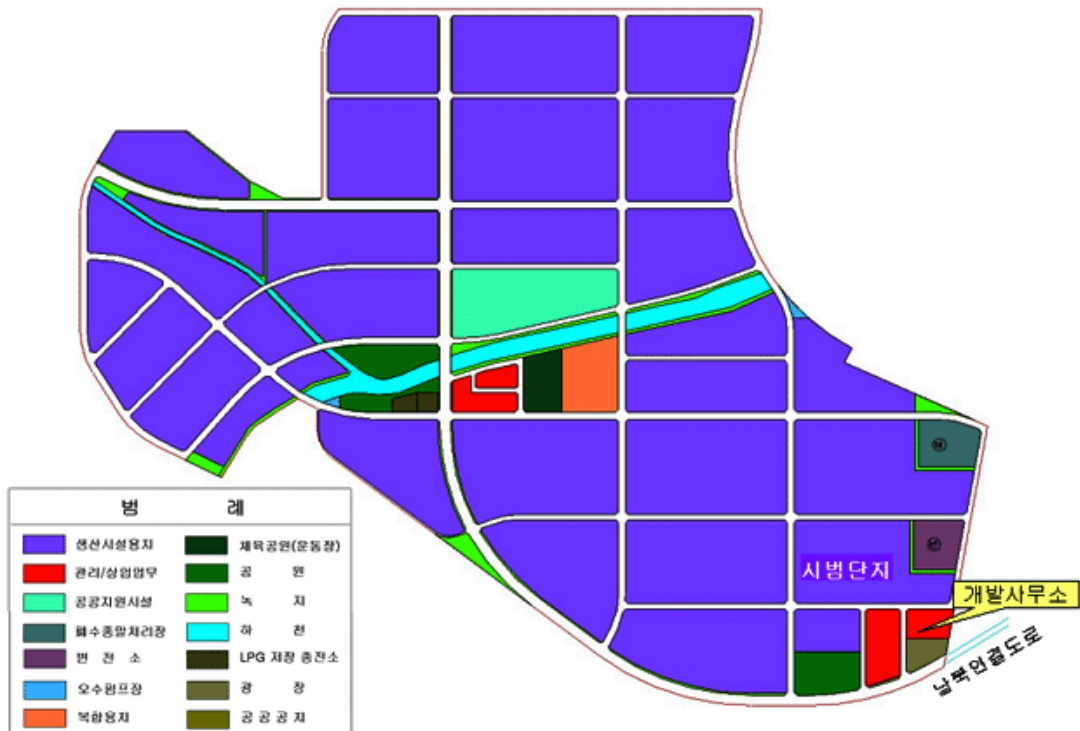
2.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 사업비 :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
-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Cluster)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시범단지 조성

-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요구를 충족하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됩니다.
 -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 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 6월 14일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9월 8일 1차로 7개, 9월 17일 2차로 4개 기업 협력사업 승인
- 일부 기업(리빙아트, 신원 등)은 금년말 입주·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시범단지 위치도



II. 1단계 부지조성 및 입주준비 현황

1. 주요 추진경과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간 조치	○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주도)	'02.12.26
	○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03.12.11
	○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03.12.22
	○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북측 조치	○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 [노동] 및 [세금] 하위제정·공포	'03.10.1
	○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2.27
	○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8.25
남북당국간 합의	○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02.12.8
	○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03.8.20
	○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 경험제도 실무접촉	'04.1.29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중기협) 공단 방문	'03.8.25
	○ 건교위 국회의원 개성 방문(의원 20명)	'03.10.24
	○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6.30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창설준비팀 구성	'04.8.16
	○ 시범단지 1차(7개), 2차(4개) 협력사업 승인	'04.9.8, 9.17

2. 현 황

①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건축

○ 공사 현황

- 규모 : 부지 3,500평, 지상 2층, 건축연면적 약 500평
- 10월중 준공 예정
- * 개발사무소내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입주 예정

② 관리기관 임시사무소 건축

○ 공사내용

- 총 1,146평을 2차에 걸쳐 건축(10월중 관리기관 창립 예정)
- 사무동, 숙소동, 교육동, 식당 등 건축, 다목적 용도로 사용
- * 숙소동, 교육동, 식당은 시범단지 입주기업과 공동 사용

③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토공사)

○ 공사현황 : 19% 공정(9월말 현재)

-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는 이미 착수
- 기반시설(용수, 폐수, 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설계중

④ 시범단지 입주·가동 준비

○ 하반기 입주 및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 부지 조성 완료(6.30)후, 공장건축을 위한 준비 공사중
- 공장 설계·설비 조달, 생산·판매계획 수립 및 북한인력 수요를 관리기관 창설준비위를 통해 북측과 협의

○ 15개 기업 중 설비·자재의 대북 반출에 문제가 없는 11개 기업에 대해 협력사업을 승인(9월 8일 7개, 9월 17일 4개) 했으며,

- 나머지 4개 기업은 반출물자 심사판정이 끝나는 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개성공단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 기업 개요 >

회사명 (대표)	업종(소분류기준)	주요 생산제품	투자금액 (억원)	분양면적 (평)
삼덕통상	신발제조	신발	49.6	2,438
문창기업	봉제의복	항공기 근무복	38	1,626
부천공업	전기공급, 제어장치	Wire Harness (전기배선부품)	45	2,438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Lamp assembly (LCD 모니터용)	30	1,220
용인전자	전자부품	트랜스 포머, 소자코일	40	2,438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자동차 연료펌프	50.8	1,220
태성산업	플라스틱제품제조	화장품 용기	60	2,438
SJ테크	플라스틱제품	반도체부품용기	40	1,626
호산에이스	일반기계제조	팬코일 (공기청정기 부품)	26	1,000
신원	봉제의복	의류	37.9	2,438
리빙아트	기타금속제조	주방기기	45	1,000

Ⅲ. 시범단지 지원대책

1. 기본방침

-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기반시설·공동시설 건설, 건축비 지원 등

2. 사안별 지원대책

① 초기 인프라 시설

-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 폐 수 : 자체 정화시설 처리 후, 정부지원 공조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 공단지역 밖 2만평을 확보(북측 제공), 소각·매립
 - 용 수 : 관정 5개를 개발, 3개 기업이 공동 이용토록 조치

* 1단계 내부 기반시설은 국내공단에 준해 무상지원(1,095억원)
- 외부 기반시설(전력·통신)은 대북협상을 조기 타결하여 공급할 예정임.
 - 전력은 15,000kW, 통신은 유선 100회선, 상업적 방식 제공

* 전력은 사업자간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통신은 사업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② 공장 건축비 및 투자비

- 입주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남북 관계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 건축비 기금대출 및 손실보조(투자보장)제도를 실시합니다.
 - * 기금대출시 후취담보 인정, 20억원 범위내 손실금의 90%까지 보조

③ 제도 개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관련 특례 제정 및 경제·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규정 개정(7.8부터 시행)
 - 방북(7→4일) 및 협력사업 승인 기간(30→15일) 대폭 단축
 - *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도 11종 → 최소 2종으로 축소

④ 지원조직 구성

-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 지원단'이 10월초에 출범하고, 공단을 종합 관리할 개성 현지 '관리기관'도 10월중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 특히,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전략물자 반출관리 등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 *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부처가 참여, 4개과 27명으로 구성

5] 남북통행절차 간소화

-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인원·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기 운송수단 확보 및 출입·통행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 셔틀버스(개성공단~서울) 9.20 시범운행 개시
 - DMZ출입시간 연장(2시간), 출입계획 통보기간 단축(3일 → 26시간) 등 저카르 가스하차여스니라

6] 전략물자 바츠르케

-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 측에 의한 공단관리),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의무, 국내 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무역협회 산하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수출(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후 통제·관리체제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지금까지 형성된 한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 수출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는 바,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 다만, EAR(미국수출통제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7] 통신공급 협상

- o 통신 문제는 사업자간 4회, 당국간 수차례 북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북측의 사업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 우리측은 남측사업자의 독립적인 통신망 건설 및 운영, 북측은 합작 또는 단독추진 방침을 고수
- o 정부는 양질의 통신공급이야말로 시범단지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북측에 설득하여 통신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N. 향후 추진방향

- 최근 당국간 대화가 지연되는 등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금년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앞으로 통신공급 협상,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등 당면 과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남북관계, 경제계 요구 등 상황을 보아가며 개성공단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 정부는 시범단지에 이어 2006년말 공장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